

“니는 뭔데 용맹정진 안하노?” “저어~ 원...주...입니다”



<17> ‘안목없는 승려의 대명사’ 원주스님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어느 해인가 일주일 용맹정진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다. 그 때의 모든 산중의 대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의 없이 의무적으로 정진에 참석토록 산중청규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 시퍼런 시절에도 예외는 있었다. 정진대중을 의외하는 원주스님은 합법적으로 빠진다.

한창 정진의 열기로 가득한 어느 날, 방장스님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는 방자한(?) 스님을 발견했다. 즉시 불려서 세워놓고 따지듯이 물었다.

“니는 뭔데 용맹정진 안 하고 돌아다니노?”

(쭈뼛쭈뼛하며) “저어~ 원...주...입니다.”

“원주우~ ???”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방장스님이 쏘듯이 한마디.

“원주는 중 아기가(아니냐?)”

내심 못마땅했지만 같 같은 노장님도 눈만 한번 부라리고는 그냥 큰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날 밤 어느때처럼 삼경에 죽을 끓여 아침을 준비하느라고 한밤중에도 공방간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행자님들의 바쁜 손놀림 곁에는 분주한 원주스님의 잔 곁을 이었다.

예로부터 절집에는 ‘범어사는 원주살림, 해인사는 회계살림’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원주와 회계가 절 살림의 중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원주나 회계는 참으로 바쁜 자리다. 개성 강한 모든 산중 대중과 찾아오는 재가자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옛 어른들은 이런 경우를 ‘방석 닦듯할 겨를이 없다’고 표현하신다. 엉덩이가 늘 방석과 떨어져 있어 ‘좌복 따로 나 따로’이니 방석 위에는 먼지가 가득하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원주는 특별한 근기가 아니면 수행과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마련이다. 대중과 더불어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 그것도 새벽이나 삼경 이후에 개

인시간을 이용하여 정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시간도 낮의 격무로 인한 피곤으로 등을 방바닥에 붙이는 것이 일상화되면 그야말로 ‘살림중’으로 전락되기 십상이다.

선어록을 열람하다보면 원주는 ‘안목없는 승려의 대명사’로 자주 등장한다. 언제나 곳은 일반 도맡아 하니 선문밖 속에서도 못한 역할을 대리로 자처하는 진자 ‘역경계 선지식’이기도 하다. 이를 알기에 선지식들은 원주를 향해 자비로운 법문을 자주 자주 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1 조주 스님의 유명한 ‘꼭대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주스님을 위한 법문이다. 원주가 후원 살림을 하느라고 법문조차 들을 여가가 없었으니 그를 위해 일대일 법문을 한 것이다. 거기서 등장하는 두 명의 남자는 원주스님을 위하여 등장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다 알고 있는 흔한 이야기이지만 그 전말은 이러하다.

조주 스님에게 어떤 남자가 찾아오자 물

눈코 뜰 새 없이 절 살림 도맡아 하는 원주 특별한 근기 아니면 조금씩 수행과 멀어져

었다.

“자넨 예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는가?”

“예.”

“차 한 잔 하계.”

또 조금 있다가 한 선객이 선사를 찾아왔다.

“일찍이 여기에 온 일이 있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차 한 잔 하계.”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원주가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당연히 의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 원주는 진짜 맹물이 틀림없다.

“어찌하여 큰스님께서는 온 적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차나 마시라’고 하고, 온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차나 마시라’고 하십니까?”



그림 · 이준석

조주 선사께서 속으로 빙그레 웃는 표정이 눈에 선하다. 그래도 ‘이놈은 살림살이에만 매달린 맹랑은 아니구나’ 하고 기록해 하실 것 같다.

“원주! 자네도 차 한 잔 하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한 소식을 해야 된가 제대로 짜여진 완성된 선문답이 될 텐데 미완성으로 끝나

“원주야! 괴롭구나. 참으로 괴롭구나. 염라대왕이 날 잡으러 온다.”

원주스님이 의아해하며 겹으로 다가와서 가만히 물었다.

“큰스님께서는 평소에는 항상 ‘상쾌하다, 즐겁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시더니 지금은 왜 ‘괴롭다’고 하십니까?”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도우 선사가 한마

행되지 않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모든 스님들’, 다시 말하면 조사선 정신을 저버리는 모든 수행자의 대명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3 그나저나 선가에 등장하는 최악의 원주는 단하천연 선사가 만행하면서 만난 그 원주일 것이다.

선어록 곳곳에서 엉성한 모습으로 묘사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스님’을 원주에 빗대

다로 매조했다.

“그래! 너 말 한번 제대로 잠했다. 그렇다면 한마디 해 보거라. ‘상쾌하다, 즐겁다’ 라고 말하면 그 때가 옳은가? ‘괴롭다’고 하는 지금이 옳은가?”

이럴 경우 뭐가 한 마디 시원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불행히도 ‘원주는 그만 말문이 꼭 막혀 버렸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 고구정령한 마지막 법문마저 무위로 돌아갔으니 이것도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아무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법문을 해도 내가 안목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도 미완성 선문답이 되어버렸다.

선어록 곳곳에서 원주의 엉성한 모습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원주라는 특정 개인이나 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공부가 병

절 살림 아간다고 불도 때지 않은 냉방에서 선사를 재우다가 나무로 만든 부처님마저 장작으로 뽕개지게 한 것이다. 땀값이 되어버린 그 불상을 바라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에 원주의 눈썹이 다 빠져 버렸다’고 묘사되어 있다.

객 대접을 엉망으로 한 과보로 법당의 부처님까지 태워버렸으니 뒤로 나자빠질 일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실림도 공부도 ‘별로’인 0점짜리 원주의 표상이다.

#4 육공대부가 선주 땅의 관찰사로 있을 때 남한 스님이 열반했다는 부고를 받고는 절에 들어가 재를 지내다가 갑자기 깔깔대며 큰소리로 웃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주스님이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신 스님과 대부와는 사제지간인

데 어찌하여 통곡하지 않습니까?” 웃음과 울음이라는 이분법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원주의 안목으로는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육공대부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원주스님께서는 무슨 말이든지 여기에 대하여 한 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크게 곡(哭)을 하겠습니다.”

수행에는 승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나라 송나라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공부인이었다. 심지어 길거리 떡장수와 여염집 노파까지도 ‘아는 소리’를 하는 통에 출가자가 불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육공대부의 질문은 원주스님의 말문이 막혀 버렸다.

사실 웃음 속에도 울음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어느 대중가수가 부른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어찌고 하는 노래 가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러나 모르겠다.

#5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원주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차례이다.

염관제안 선사 회상에서 후원의 살림만 하던 원주가 어느 날 임종을 맞게 되었다. 염관대왕이 그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하여 저승사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스님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없이 저승사자에게 통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내가 대중시봉을 자청하여 후원의 소임을 신명을 다해 살았습다. 그러다보니 공부할 겨를이 없었고 또 잠시 본분사를 놓쳤습다. 제발 바라건대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에 저승사자는 그 진지함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염관대왕께 아뢰어서 허락을 받는다면 7일 뒤에 다시 오겠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면 바로 죽시 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갔다. 일주일 유보 관정을 받았는지 곧바로 나타나는 않았다. 원주는 ‘휴우~’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후 다시 발심하여 정갈 간절함으로 열심히 화두를 참구하였다. 곧 선정상태에 들었다. 약속한 7일 뒤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선정에 빠져있는 그 원주스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저승사자 정도의 안목으로는 찾아낼 래가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 데리고갈 래야 데리고 갈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또 허탕이었다. 그 원주스님은 7일만에 생사 일대사를 해결해 버린 것이다.

“원주스님! 만세, 만세, 만만세!”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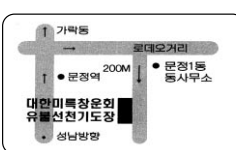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전지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한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양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료)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인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